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서울 목동에 사는 법안정사 신도인 오유미(30)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초고속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한다. 조리법과 재료가 들어 있는 요리관련 사이트와 영화·연극·콘서트 예매 사이트는 물론 수시로

**인터넷시대 막자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문화강좌 및 편의시설, 민원서류 이용안내를 살펴본다.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일정한 실리를 살 수 있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얻을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항공권과 열차표를 예매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철도청·티켓판매권 사이트에서부터 부동산,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 중고품 판매 및 홈쇼핑 사이트 등 계층별로 유용한 정보가 적지 않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각종 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여론관계를 통한 지역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다. 평소에는 접처럼 만나기 어려운 자치단체장이나 장관과의 대화와 각종 여론수렴 창구를 통한 사이버 민주주의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통일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등 주요 정부부처 홈페이지에는 불교단체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적지 않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 문화재보수비 등 각종 지원금, 각 자치단체의 복지시설 위탁운영 정보 등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가 적지 않다. 정보화 시대에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 이를 재가공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이들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사찰이나 불교단체 종사자는 물론 불자들이 컴퓨터를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생활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업무에 활용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생활화 운동'에 동참할 때다. 연립별·직업별·주제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들, 방송·신문사 등 전문적인 정보제공업체와 기업들, 정부기관, 민간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매일 매일 정보를 흡수처럼 쏟아낸다. 이제 불자들이 인터넷과 친밀해져야 하고,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공부하는 자세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조계종 2천여 사찰 12일 오전 10시 '108 타종'
“남북 정상회담 성공 발원”

태고종 7~9일 선암사서 통일기원 정대불사

분단 50년만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의 원만성취와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2천만 불자들의 열원을 담은 기원 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12일 오전 10시 전국 2천여 사찰에서는 일제히 범종을 울려 회담 성공을 기원하고, 사시 축원을 통해 통일 발원문을 봉독한다. 태고종, 강인도불교연합회, 통도사도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오는 12일 사시예불 때(即時, 오전 9~11시)에 전국 사찰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사시 축원과 108 명종(鳴鐘)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사시 축원은 사찰에서 사시에 울리는 불교의식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맞아 전국 공통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원만히 성취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이산가족 상봉이 속히 이루어지고 남북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없기를 모든 대중은 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발원하옵나이다'라는 축원문을 공동으로 봉독하게 되며, 동시에 전국 사찰에서 108만 타종을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25일 열린 총무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남북의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는 2천만 불자들의 열원을 모으자'는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제안에 따라 정상회담 성공 개최 기원의식을 봉행하기로 했으며, 전국 본·말사예 공문을 보내 사찰의 참여를 당부했다. 사시 축원은 오전 예불(禮佛)때 봉행하는 의식이며, 명종

태고종 7~9일 선암사서 통일기원 정대불사

의식은 사찰에서 중요한 행사나 의식 때 타종하는 의식이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인곡)은 7~9일 선암사에서 1만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성사 및 평화통일기원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이번 정상회



모내기 울력 통도사 부방장 약산스님을 비롯한 선원과 강원도의 스님 600여명이 5월 30일 경내 경직지인 장말들로 모내기 울력에 나섰다. 마음밭을 일구듯 정성을 들여 모를 심는 얼굴에 귀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날 스님들은 600여명의 눈에 모를 심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공원정책 워크숍 28일 연다

조계종의 참여연대 소송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는 5월 31일 총무원총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참여연대 및 문화재 관련로 반한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특별대책위는 소송에 대해

“환경·인권 등 시민운동 불교 새포교 전략으로”

조계종 교육원 본말사 주지 연수회서 제기

새 시대를 맞아 숫자에 연연하는 포교를 지양하고, 환경감시·인권·통일 등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포교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민)이 5월 31일부터 1일까지 개최한 서울·경기·강원 본말사주지 연수회에서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은 "새로운 사회의 급격한 변화: 시민사회의 부상"이라는 강의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유국장은 "생태적 위기를 눈앞에 둔 전세계 인류지성은 대안으로 불교적 사유체계 및 수행에 그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불교는 이제 생명운동이라는 포괄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불교사회운동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국장이 제시한 불교내 운동책으로는 감시운동(생물, 환경, 정부정책), 지역운동(내고장 지키기, 지역문화지도 제공, 지역생태계 조사), 인권운동(북한탈북자, 어린이, 실직자, 여성), 계몽운동(부부윤리, 피해자고발, 비평청소년상담), 전통문화운동(문화찾기, 문화가꾸기), 산림지킴이운동, 국제 NGO운동, 지역화해운동, 통일

지리산땀 건설 백지화 촉구

이들은 "정부는 지리산땀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이를 위해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이를 관철시켜 나가는 한편 법률고대법위(준비위원장 수경스님)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표문 6면) 한편 서울·경기·강원지역 본말사 주지 213명은 1일 남한강수련원에서 연수회를 갖고 '지리산땀 건설계획 백지화와 지리산 살리기' 동참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률고대법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불교·환경단체 30곳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30여개 불교단체와 녹색연합은 5월 30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리산땀 건설계획은 생태계와 민족문화의 보고인 지리산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이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불교단체와 녹색연합 대표들은 이날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리산땀 건설계획은 지역사회의 불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생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buddhanews.com 6월1일 '오픈'

훈훈한 봄을 느껴 보세요!

푸른 하늘,
 맑은 물,
 아름다운 자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The Leader
POSCO
 http://www.posco.co.kr